

茶 & culture

27 현대불교 제484호

서기 2004년 7월 28일 수요일
www.buddhanews.com

맛 · 향 · 색 · 포장 · 명차를 말한다

제1회 차평평대회 우수제품 선정



전통 제다법 사용한 '무공해 식품'

가 바로 맛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녹차 재배의 최적지인 해발 400m의 고도와 평균 강우량 1500mm 이상의 기후 조건이 차의 맛을 결정한다"는 문 대표의 "차잎을 손으로 채취해 전통적인 제다법으로 만든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천보녹차는 가마솥에 튀어 명석에 비비고 자연 건조시키는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마신 뒤에도 향이 오래 입안에 머무는 '무공해 자연식품'입니다. 우리 차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853-9227

백탄숯불에 튀어 변함없는 맛 선사

다"고 말한다.
쌍계차는 익히고 비비는 작업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백탄숯불에 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 하지만 김 대표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안개, 따뜻한 햇살과 비와 바람이 차의 맛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자신은 여기에 '정성'만을 더할 뿐이라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쌍계차의 차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도 선정되어 차 애호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055)883-2449

입지조건 최고 정성스런 수제공정

아니다. 전 대표는 차 잎도 한 잎 한 잎 직접 채취한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몇 번의 수제공정을 통해 정성이 스며든 수제녹차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능력껏 소량씩 재배하는 차이지만, 전문가의 기술과 정성이 모든 과정에 배어있다.
"우리나라 차의 고향인 '화개골'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이 화개골 차생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55)884-7444

싱그러운 장인정신 더한 명품

이 시점에 한국차의 우수성과 기호성을 찾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죽로차'는 대밭 사이에서 아침이슬을 머금고 자란 싱그러운 차나무 잎이 뜻.
"야생차에 손맛이 더해져 자연의 청정함을 차심으로 바꾸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는 조 대표는 "앞으로 좋은 차를 만들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청정에 자만하지 않고 차인의 긍지를 담아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055)883-1743

일곱번 튀어 만든 수제차에 자부심

수제차입니다. 일곱 번 튀어서 정성껏 만듭니다. 하동의 좋은 자연 환경과 차인들의 정성이 결합해 만드는 만큼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햇차원이 차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사람들로 불비는 이유도 바로 그 정성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햇차원은 감식초와 녹차를 결합한 감식초 녹차와 반발효차인 '바위차'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055)883-3282

김주일 · 여수령 · 강신재 기자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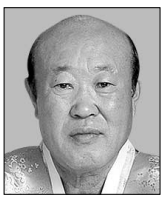
■ 천보다원 '천보녹차' (대표 문평식)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녹차를 이용한 것이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차 발전을 위해 힘쓰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자리잡은 천보다원의 문평식 대표는 수상의 영광을 '자연'으로 돌렸다. 30여 년 이상 비료나 농약 없이 시원한 남해의 해풍과 안개 속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야생차

우수품질상

■ 봉황다원 '세작 월광' (대표 허정홍)



"뜻밖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양질의 녹차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에서 우수품질상에 선정된 '월광차'를 만들고 있는 봉황다원 허정홍 대표. 경남 하동군 약양면 봉대리에서 30년째 녹차 밭을 일구고 있는 허 대표는 녹차의 뛰어난 효능에 관심을 갖게 돼 녹차 재배를 시작

저렴한 가격으로 수제차 대중화

했다고 한다.
"어릴 때만 해도 설사나 감기를 다스리는 약으로 쓰이던 차가 대중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돼 뿌듯하다"는 허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세작 월광'은 곡우와 입하 사이에 돌아오는 이슬 따서 만든 차로, 수제차가 지닌 맛과 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루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차"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에 이로운 기호식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차를 만들겠습니다." (055)883-3177

□ 곡천다원 '하동녹차' (대표 이호복) - 품질상



"다들 열심히 하는데 게을리 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진했다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듯합니다."
곡천다원 이호복 대표는 수상소감에 앞서 소농들이 일념으로 일구는 화개의 차 재배 열기부터 전했다. 가장 뛰어난 품질을 향한 지역 차인들의 노력이 이 대표를 끊임없이 자극했다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녹차재배에 매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

품질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한 것이 많습니다. 차재배에 몰입할 수록 연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대표는 4시간 거리의 한서대 대학원에서 녹차 공부하고 있고, 아내 역시 원광대 디지털대에서 차를 배우고 있다.
"차재배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동인력이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대회가 차재배 전반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55)883-5160

□ 다우제다 '청심야' (대표 이승관) - 품질상



"제다인으로서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차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다우차점과 다우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관 대표는 인터넷에 카페(http://cafe.daum.net/dawucafe)를 개설해 우리 차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차인이다.
인터넷 카페에는 60여명에 달하는 회원이 모여 차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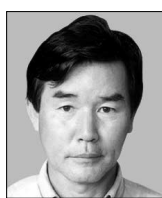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차'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뒤늦게 수상 소식을 들어 아직 열떨떨하다"는 이 대표는 "순간순간 열심히 차를 만드는데 매진하다 보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종 공해와 매연에 찌든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으로써 코와 입이 즐겁기보다 속이 편안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055)883-0765

□ 쌍계제다 '쌍계차' (대표 김동곤) - 품질상



쌍계제다는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인 경남 하동의 화개골에서 10대째 야생차 제다법을 이어오고 있는 '터죽대감'이다.
"우리의 전통차를 전국의 차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워 차를 만드다"는 김동곤 대표는 "한 잎 한 잎 손으로 따서 숯불에 튀고 선별해 포장하는 작업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항상 햇차와 같은 변함없는 맛을 낼 수 있

□ 예전농원 '예전녹차' (대표 전상연) - 품질상



"입지조건이 좋아서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농원으로 품질상을 받은 예전농원 전상연 대표는 화개골의 뛰어난 입지조건에 수상의 공을 돌렸다. 한 겨울에도 꽃을 피운다는 경남 하동군 화개골은 기후나 토양 등 차재배 입지조건이 뛰어나 품질이 우수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의 품질은 자연환경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 대한다업 '봉로' (대표 장영섭) - 품질상



"보성다원의 삼나무 오솔길과 차밭 사이길을 걸으면서 싱그런 차향과 깊은 맛을 음미하세요."
대한다업은 장영섭 회장이 1959년 해발 350m 보성 오선봉 주변에 대단위 차밭을 일구고 삼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관상수를 식재해 민중산 불모지에 보성차 관광농원으로 출발했다.
대한다업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인 '봉로'는 적합한

마케팅 차별화 경쟁력 갖춘 대표차

기후조건과 충분한 살비, 그리고 정성이 담긴 특산품으로 명실공히 보성의 대표적인 명차로 자리잡고 있다. 녹차 이외에도 요즘에는 가루녹차, 녹차 아이스크림 등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차별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 푸드의 범람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녹차는 하나의 대안 식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에 녹차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 조태연가 '조태연가족로차' (대표 조윤석) - 품질상



국내 최초로 삼입차를 만들었던 조태연 응에 이어 2대 조영호, 3대 조윤석 씨로 이어져 온 조태연가. '울금지 않은 차는 팔지 않겠다'는 장인정신으로 차를 재배해 오고 있는 조태연가의 차는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품(名品)'이다.
"죽로차'로 품질상을 받은 조태연가 조윤석 대표는 "이번에 열린 차 평평대회는 한국 차산업의 과도기인

□ 신옥로제다 '신옥로곡우' (대표 조상래) - 품질상



"저희 회사는 100% 기계로 차를 재배합니다. 기계로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품질이나 맛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차는 수제차보다 맛과 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신옥로제다를 설립해 운영해 온 조상래 대표는 신옥로제다의 녹차제품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다. 특히 조 사장은 소비자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저렴

웰빙 시대 맞춘 녹차 개발로 승부

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급 녹차를 제공한다는 경영 철학을 줄곧 지켜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회사인근 도로변에 무료시음장을 만들어 자회사의 녹차의 효능과 특장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녹차의 질을 높인다는 장인정신으로만 일해왔는데 이렇게 막상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니 책임이 무거움을 느낀다"는 조 사장은 기존 녹차 외에 요구르트에 타먹거나 마사지 용으로 사용되는 가루녹차와 음료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엽녹차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061)852-8283

□ 햇차원 '녹로' (대표 이기남) - 품질상



햇차원은 1977년 지리산 자락에 3만평의 녹차 밭을 조성해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제8회 하동 야생문 화축제'에서 '명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영예는 '국민 건강 지킴이'를 사훈으로 내걸고 녹차에 인생을 바친다는 이기남 대표의 집념과 고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희 회사에서 특화 상품으로 내건 '녹로'는 완전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신전성 냉해 신후바람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관절염은 참 건기가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화학사 권재우 홍(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냉다슬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향속에 묻어둔 된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미를 토종 (민속농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견누비엔(억울)	면(억울), 광복	무명	모직	마(억울)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마 250,000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마 180,000 ~ 250,000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마 140,000 ~ 170,000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하복지-구입값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목베 60,000 ~ 셔츠 30,000 ~

대구고속터미널 중간 동부경유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하당

"하당" 원재료: (갈근, 치자, 대계, 계피, 감초, 갈승, 칼립)

이온성 알카리 복합제 · 하당(糖)

무료체험을 실시합니다.

☆ 소비자 만족 시스템(15일간의 무료체험) ☆

◆ 15일이면 결과?!

◆ 15일분을 무료로 드립니다.(하당)
(책자+택배비+기타비용=18,000 하당 [100ml×45회]) 소비자부담

◆ 1만 5천명에게 체험시켜 드립니다.
(체험 후 체험수기를 보내 주십시오.)

◆ 신제품 하당을 직접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만족 시스템!
: 그동안 시중에서 구입하여 돈 낭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체험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

※ 1인 한분의 기회
하당 체험후 구입가 1개월분 180,000원 [100ml×90팩]

대리점모집중 문의 : (02)523-4060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무료전화 : 080-621-6666